마음 없어지면 어디서나 해탈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⑬ 임제선의 돈오돈수

"여러분, 마음의 법칙은 형상이 없으면서도 온 시방세계를 관통하고 있다. 눈으로는 본다 하고, 귀로는 듣는다 하며, 코로는 냄새를 맡는다 하며, 입으로는 말한다 하며, 손으로는 잡는다 하며 발로서는 걷는다 한다.

본래 하나의 정명(精明, 마음)이 나뉘어 여섯 가지 화합이 되었으니 한마음이 없어지면 어디서나 해탈이다.

산승이 이렇게 말하는 뜻이 어디 있는가 하면 도를 닦는 사람들이 밖으로 치달리는 마음을 쉬지 못하고 저 옛날 사람들의 부질없는 기용(機用)과 경계에 끌려가 놀아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산승의 견해를 가지고 말한다면 보신불, 화신불의 머리를 깔아뭉개버려야 한다. 십지의 수행을 채운 보살도 아직 빌어먹는 거지와 같고 등각, 묘각도 목에 형틀 걸치고 발에 족쇄를 찬 죄인에 불과하다. 아라한과 벽지불은 뒷간의 똥오줌 같고, 깨달음이라느니 열반이라느니 하는 것도 나귀를 매어 두는 말뚝이다. 어째서 그런가? 도를 닦는 이들이 삼아승지 겁이 공한 줄을 알지 못하기에 이런 장애가 있는 것이다.

만약 진정한 도인이라면 이렇지는 않다. 다만 인연을 따라 묵은 업장을 없애며, 형편대로 옷 입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앉고 싶으면 앉을 뿐 한 생각도 깨달음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 무슨 인연으로 그러한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만약 업을 지어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부처가 오히려 생사에 윤회하는 큰 조짐이라 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없어지면 어디서나 해탈이다.' 이 말은 외부의 경계에 끌려가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외부의 경계에 끌려가면 마음속에 어떤 관념적인 생각이 생긴다. 그러면 본래의 공적지심(空寂之心)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임제의 법문은 이 대목에 와서 매우 강렬해진다. 도를 닦는 수행자가 어떤 관념적인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을 타파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설해지고 있다. 먼저 마음이 시방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이 말은 마음이 시공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마음이 툭 터지지 못해 경계를 의식하는 생각이 남아 있으면 해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심지어 보신불이니 화신불이니 하는 부처에 사로잡혀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보살 십지(十地)나 등각(等覺), 묘각(妙覺)의 지위도 부질없는 것이고, 나한이나 벽지불도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런 말은 점교(漸敎)나 점수(漸修)의 수행방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제의 근본 종지(宗旨)인 돈오돈수(頓悟頓修)의 대의가 나타나고 있는 대목이다. 임제선의 특징이 바로 돈오돈수다.

선수행에 있어서 종지를 세워 실참(實參)을 할 때 대표적인 두 가지가 돈오돈수(頓悟頓修)와 돈오점수(頓悟漸修)다. 규봉종밀(圭峰宗密 · 780~841)의 〈도서(都序)〉에는 돈점(頓漸)의 문제를 7가지 유형으로 설명, 7대 돈점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돈오돈수와 돈오점수가 돈점의 문제를 대표한다. 돈오란 단번에 깨달음을 실현한다는 뜻이다. 이는 '한 번 뛰어서 바로 여래의 지위에 들어간다(一超直入如來地)' 는 말과 같이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취지를 나타내는 말로 중국 선종 특히 남종선의 특색을 이루며 일반화된 말이다.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포착하여 시간적인 과정을 빼고 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육조단경〉에 혜능이 직접 말하기를 "홍인 화상의 문하에서 한 번 듣고 바로 깨달아 진여의 본성을 단번에 보았다"는 말이 나온다. 또 실제적인 참된 수행이 돈오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미혹한 마음으로 도를 닦는 것은 무명을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迷心修道 但助無明)"고 하였다. 그리하여 단번에 깨닫고(頓悟)부터 점점 닦아(漸修)나간다는 말이 일반적인 말처럼 쓰이다가 돈오의 순간에 점수가 함께 완성된다는 돈오돈수설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는 근기가 뛰어난 상상지(上上智)의 사람의 경우라고 규봉은 설명했다.

마지막 대목에 와서 하는 말은 진정한 도인은 자기 업(業)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불과(佛果)를 구하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였다. "업(業)을 지어 부처가 되려는 것은 부처가 바로 생사윤회의 큰 조짐이다"는 말이 묘한 여운을 남긴다.

〈조계종 고시원장〉

일상삼매는 慧, 일행삼매는 定



세상 속 경전읽기

⑬ 일상(一相)삼매와 일행(一行)삼매

〈문수사리소설마하반야바라밀경(文殊師利所說摩訶般若波羅蜜經)〉은 약어로 〈문수설마하반야경〉이라고도 부르며, 양(梁)나라 때 부남국[扶南國, 지금의 캄보디아]의 삼장 만다라선(曼陀羅仙)이 CE 503년에 한역(漢譯)하였다.

이 경은 차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반야바라밀과, 우주의 근원에 마음을 집중하는 일행삼매(一行三昧)를 설한 경이다. 상권에서는 무상(無相)의 반야바라밀다에 대해 설하면서 관불(觀佛)을 강조하고, 하권에서는 무상의 일행삼매를 염불(念佛)삼매와 관련하여 설한다.

당(唐)의 현장(玄奘)이 번역한 〈대반야경(大般若經)〉 600권은 반야부 경전의 약 3/4을 차지하는 방대한 경으로, 전체가 16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7회는 만수실리분(曼殊室利分)으로 제574~575권이며, 차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반야바라밀과 우주의 근원에 마음을 집중하는 일행삼매(一行三昧)를 설한 것이다.

일행삼매는 중국의 선불교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4조 도신(道信)과 5조 홍인(弘忍)을 거쳐 북종선(北宗禪)의 신수에게 전해졌고, 신수는 일행삼매를 소의(所依)의 수행법으로 삼았다.

6조 혜능(惠能)도 일행삼매를 강조하였으며, 〈육조단경〉 종보본(宗寶本) 제10 부촉품에 일체종지(一切種智)를 얻고자 하면 일상(一相)삼매와 일행삼매에 달(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체종지는 붓다만이 갖춘 것이니, 일체종지를 얻는다는 것은 곧 붓다가 되는 것이다. 또한 불생증애[不生憎愛,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를 내지 말라 말하였다. 증애를 내지 않으려면 시비분별심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일상삼매이다.

혜능은 순일직심[純一直心, 순일하고 곧은 마음]이 부동도량[不動道場, (우주의) 근본을 떠나지 않음]하는 것이 일행삼매라 하였다. 정혜(定慧)를 함께 닦아야 하는데, 일상삼매는 곧 혜(慧)를 닦아 통달하는 것이고, 일행삼매는 곧 정(定)을 닦아 통달하는 것이다. 일상(一相)은 곧 우주의 근원이어서, 일상삼매는 우주의 근원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일행(一行)은 일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어서, 곧 일상삼매가 이어지는 것이 일행삼매이다. 일상삼매가 우주 근본자리의 사진을 찍는 것이라면, 일행삼매는 동영상을 찍는 것이다.

"육조대사께서 다시 또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만약 (일체)종지(種智)를 성취하고자 하면, 마땅히 일상(一相)삼매와 일행(一行)삼매에 달(達)할지니라. 만약 모든 곳에 처(處)하더라도 상(相)에 머물지 않고, (만나지는) 여러 현상들 가운데에서 증애[憎愛, 미워하고 좋아함]의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취사선택을 하지 말고, 이익(여부)도 생각지 않고, 성괴[成壞, 이루고 허물어짐] 등의 일도 생각지 않고, 평안하고 한가롭고 고요하며, 거리낌과 욕심 없이 깨끗하고 맑은 경계를 일상삼매라 한다. (또한) 만약 일체처(一切處)에 다니고 머물거나 앉고 눕거나 간에 순일직심[純一直心, 순수한 하나의 곧은 마음]이 도량[道場, 근본자리. 본체]을 여의지 않으면 진실로 정토를 이루니라. 이것을 일행삼매라고 한다.

만약 사람이 일상삼매와 일행삼매를 모두 갖추면, 땅에 씨를 뿌려 대지가 씨를 잘 품어서 오래 기르고 익혀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도다. 내가 지금 설법하는 것은, 마치 때에 알맞게 비가 내려 대지를 널리 잘 적시는 것과 같으니, 그대들의 불성도, 비유하면 종자가 비를 만나 두루 젖어 윤택해지고 싹을 틔우듯이, 내가 말한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의 뜻을 받드는 자는 결정코 보리(菩提)를 획득하고, 나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이는 진실로 붓다의 묘한 과보를 성취한다.' "

〈六祖大師法寶壇經 T2008_.48,0361a26-b07〉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⑲ 이해의 길 39

마음과 언어가 만나면 '소통'

"니 눈빛만 보고 네게 먼저 말 걸어 줄 그런 여자는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한때 가요계를 강타했던 4인조 혼성그룹 자자의 '버스 안에서' 라는 노랫말이다. 얼마 전 추억을 소환하는 TV 프로그램인 '슈가맨' 에 출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 노래는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 말하지 못한 채 상대가 내 마음을 알고 먼저 다가오기를 바라는 소심한 남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세상에 그런 여자는 없다고 가수는 잘라 말한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것이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처럼 일상에서 많이 작동하고 있는 마음과 언어는 선(禪)과 교(敎)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다. 교종이 붓다의 말씀을 기록한 경전 중심의 불교라면, 선종은 이심전심(以心傳心)에서 드러나듯이 마음을 중시한다. 선은 달을 가리키는 수단인 언어에서 시선을 떼고 직접 마음을 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선불교가 국내에 소개된 것은 신라 말이다. 선종은 가지산문이나 실상산문을 비롯한 아홉 개의 산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를 가리켜 흔히 구산선문(九山禪門)이라 한다. 구산선문이 형성되면서 한국의 불교계는 화엄종이나 법상종과 같은 교학 중심에서 벗어나 실천을 중시하는 선 중심으로 재편되기에 이른다.

처음 선불교가 소개되었을 때, 기존 교학에서는 '악마의 말(魔語)' 이라고 할 정도로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개방적이고 평등을 강조한 선은 대중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서 차츰 그 영향력을 키워갔다. 당시의 교학불교는 돈과 지식, 권력을 지닌 소수의 왕족이나 귀족들만 향유할 수 있는 고급문화였다. 이러한 그들만의 리그를 모든 이들을 위한 불교로 확대시킨 것이 바로 선불교다. 선은 돈과 지식이 없어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신문화를 바라문들이 독점하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이 깨친 진리를 모든 대중들에게 개방한 붓다의 이념과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열린 가르침에 대중들은 환호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계급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부처로서 평등하다는 선불교의 정신은 당시에는 혁명에 가까웠다. 이는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면서 평등을 외쳤던 2,600여 년 전 붓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그 정신이 선불교를 통해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중들에게 선불교가 매력적으로 다가온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전국에 구산선문이 형성되고 선종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교종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다.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에 따르면 이 둘이 서로 '원수처럼' 싸웠다고 하였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 둘을 소통시킬 수 있을까?' 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 근거를 찾기 위해 선사(禪師)임에도 불구하고 교종에서 중시하는 〈대장경〉을 3년 동안이나 연구하였다. 그가 찾은 해답은 '선은 부처님의 마음(禪是佛心)이며, 교는 부처님의 말씀(敎是佛語)' 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곧 마음을 밖으로 드러낸 것이 말씀이니, 선과 교는 하나라는 뜻이다. 마음과 언어가 만나면(會) 서로 통(通)할 수 있다는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결론이다. 선교회통(禪敎會通)의 전통이 확립되는 순간이다.

불교를 아무리 다양하게 설명한다 해도 그 본질은 '깨침과 자비' 에 있다. 그리고 깨침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자비를 통해서 실천되어야 한다. 깨침과 자비를 둘이 아니라(不二)고 하는 이유다. 깨침을 향한 길이 선(禪)이라면 자비, 즉 중생을 위한 길이 바로 교(敎)다. 마음으로 깨친 진리를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럴 때 비로소 깨침과 자비, 선과 교는 하나가 된다.

이를 일상에 적용하면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 선이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교는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많이 있더라도, "사랑합니다"는 말 한 마디면 그동안 쌓인 모든 감정이 눈 녹듯 녹고 만다. 이처럼 말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마음과 언어가 만나면 소통이라는 엄청난 에너지가 작동하는 법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A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Q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 서울·경기 02-456-8831 · 충 청 도 010-6545-3350 · 전 라 도 011-248-6298
· 강 원 도 019-396-1110 · 경 상 도 010-4187-006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통신수업 3개월과정(57기) 교육자료 배부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불교의식 교육을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녹음강의 통신수업으로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20년 4월 2일부터 3개월
· 교육방법 : ① 의식강의 내용을 녹음하여 CD로 보급합니다.
② 강의 내용과 관련한 교재 및 교육자료를 배부합니다.
③ 교육관련 궁금한 내용은 통신교육 기간내에 전화 질의 상담으로 교수합니다.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될 수 있는 의식방법으로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